

# 반디의 시위\*

김완수

반디의 아스라한 시위가 궁금했다  
다 켜지 못한 불을 쫓무니에 붙이고  
구경꾼도 야경꾼도 없이 시위하는 걸 보고서  
짠한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 
한여름밤의 이슬 같은 몸짓이라  
그보다 뭔가 고결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했다

처음엔 저를 청정으로 내모는 결벽인 줄 알았으나  
반디가 제 의식(意識)에서 불면하는 건  
서툰 자의가 아니었다  
대낮의 췌소리가 총성같이 울리고  
소리의 여백이 산그늘보다 넓을 때  
반디는 제가 뿌리내린 숙면에서 깨  
의식의 계토로 이주했다

사람의 퇴거 명령이 탈바꿈을 재촉하자  
반디는 목소리를 키웠다  
세상 이목에서 사라질 줄 알아도  
날로 산란(産卵)하는 인적은 버틸 수 없었겠지  
야박하게 반디들 간을 내먹던 차운(車胤)\*은  
일찌감치 그 목소리를 읽었을지 모른다  
외면의 우범지대에서

내게 황달 같은 불을 켜 반디

내 밧그레한 시선에 촛농이 떨어지는데  
하루살이들의 가열(苛烈)한 시위를 보면서도  
손사래로 눈 가릴 수 있을까  
이제는 두메 끝 벼랑으로 날아가  
촛불을 살리는 반디  
반디의 꺼지지 않는 의식이 궁금하다